

# 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 '확대'

### 익산시, 다양한 신규정책 발굴... 경제 활성화 총력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담은 맞춤형 시책을 확대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시장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주요 사책 지원범위 확대, 직원

노무교육과 경영 안정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해 요청하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구인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를 반영해 시는 소상공인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우선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이 늘어난 업체들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정규직 등 채용을 안내하는 구인정보 게시란 옆에 단기 채용 위주의 아르바이트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구인정보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업체는 물론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의회 검토를 거쳐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 지원, 영세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민간비탈입 중계수수료 직접지원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전국 어디든 관계없이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익산에서 재창업하는 경우이면 100만원의 다이로움 정책수당을 지급한다.

앞서 시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최대 규모의 혜택을 지원해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하 대야 수영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오는 7일부터 2022년 수영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 오랜 기다림... 일상으로 회귀

### 군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다채로운 강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군산시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하 대야 수영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오는 7일부터 2022년 수영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매일 1일 ~ 6일까지로 수강생 8개반 총 440명 정도를 선착순 모집한다. 등록 신청은 수영장 매표소를 직접 방문에 신청하고, 어린이반 및 인명구조·수상구조사 자격 실기반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소통참여-통합예약시스템-일일마당에 상세히 기재돼 있다.

프로그램은 신규, 초급, 중급, 고급, 연수 5개반과, 초등 1학년~3학년 대상으로 어린이 초급반 및 수영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클럽반, 인명구조·수상구조사 자격 실기반 등

총 8개반이 편성됐다. 선수 출신 및 인명구조·수상구조사 전문지도 자격증을 보유한 지도자가 직접 지도해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수영장 운영 시간은 평일은 오전 6시 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일요일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감으로 운영되며, 중간에 정비시간(오후 12시~1시)을 적용해 전체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한다. 정 기휴관일은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매일 물체주·넷째주 일요일이다.

시민은 시간대에 구애 없이 누구든지 당일 티켓으로 입장해 자유수영을 즐길 수 있으며, 정기간 등록비는 한 달 기준으로 성인 4만4,000원, 청소년 3만3,000원, 어린이와 경로인은 2만 2,000원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동네문화카페 학습자 원데이 프리마켓 운영

### 군산시, 참여 강사와 수강생... 그 동안 배운 경험 판매·전시·체험 재능 나눔 선사

군산시는 동네문화카페에 참여하는 강사와 수강생이 자진해서 그 동안 배운 경험을 판매, 전시, 체험 등의 재능 나눔 프리마켓으로 즐거움과 보람을 선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나운동 강천상가 광장에서 손뜨개(지속성장형)강좌 수강생들이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한마음 한뜻을 모아 튼튼히 다져온 실력으로 만든 캐비닛 브릿지, 머플러, 손수건 등의 손뜨개 용품을 판매, 전시했다.



군산시는 동네문화카페에 참여하는 강사와 수강생이 자진해서 그 동안 배운 경험을 판매, 전시, 체험 등의 재능 나눔 프리마켓으로 즐거움과 보람을 선사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다양한 체험거리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강사와 수강생의 주도로 진행된 프리마켓으로 얻어진 수익금의 일부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어서 훈훈함을 더해준다.

올해 신규 개설된 지속성장형 강좌는 그간 동일 강좌를 2년 이상 참여

해 한 단계 성장한 그룹을 위해 10회 강좌 참여 외에 5회 학습동아리 형태의 자율 학습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설된 강좌다.

시는 한 단계 성장한 시민 역량에 맞춰 사회 환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계획이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농촌활력대학 문화·복지 마을동아리 '육성'

익산시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농촌활력대학 '문화·복지 마을동아리 육성 과정'을 6월부터 재개한다.

농촌활력대학 문화·복지 마을동아리 육성 과정은 문화·복지 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마을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마을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참여 마을에는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리더교육과 마을별로 선정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이론 교육을 진행한 후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강사, 재료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찾아가는 문화·복지 마을동아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참여는 마을별 주민 10명 이상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 농촌 마을이면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며, 30개 마을 이상 신청할 시 기존에 주민 문화 활동 지원 경험이 없는 마을을 우선 선정하

고 이후 선착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인터넷 등에 취약한 농촌마을 어르신들을 배려하여 참여 신청은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우선 전화 접수(사누리 마을연구소 ☎ 063-833-1218) 후 운영 기관 담당자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은 "농촌 주민의 활력을 살리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자활기업 현장 의견청취·자립지원

군산시는 자활기업을 방면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일 밝혔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해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현재 시는 수산물판매(정정수산), 집수리사업(이름건축), 청소용역(미소그린), 김부각 판매(맛갈난푸드), 정부양곡 배송(한마을물류), 가사건형서비스(한마을사회서비스센터), 위탁청소(더 좋은환경협동조합), 식당 운영 및 반찬 판매(한마을밥상), 공예품생산판매(일새) 등 9개의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 78명의 취약계층이 취업해 자립의 꿈을 키우고 있다.



또 시 자활기업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역량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자활사업 추진 중으로 월명동 동국사 부근에서 김부각을 제조 판매하는 '맛갈난푸드'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합매니얼 트렌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 점을 착안, 즉 식혜를 개발해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아이스팩 재활용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익산시가 아이스팩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해나간다.

시는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아이스팩 수거 장소를 기존 5개 행정복지센터에서 8 개소로 확대한다.

합월읍 동산동, 모현동 영등동, 삼성동에 이어 신동, 어양동, 영등동 행정복지센터가 추가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아이스팩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은 가장에 보관하던 젤유형의 아이스팩을 거주지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배출하면 된다.

수거된 아이스팩 5개당 2리터 종량제봉투 1매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며 수거한 아이스팩은 시민단체와 협업해 세척과 소독을 거쳐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반려식물 가꾸기 프로그램 실시

익산시가 코로나19 인한 스트레스로 의료기관 의존성이 높은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가꾸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시는 질병에 비해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반려식물 가꾸기를 포함한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가운데 연간 급여액 700만 이상 상위 30% 이내 해당자 중 40명을 연중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의료급여관리사들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반려식물 관리법과 의료급여제도를 안내하고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향후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전년 대비 의료이용 횟수가 감소한 우수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니은정 복지정책과장은 "복합적 의료복지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이번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는 물론 심신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